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내 유년의 7월에는 냇가 잘 자란 미루나무 한 그루 솟아오르고 또 그 위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내려와 어린 눈동자 속 터져나갈 듯 가득 차고 찬물들은 반짝이는 햇살 수면에 담아 쉼 없이 흘러갔다.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착한 노래들도 물고기들과 함께 큰 강으로 헤엄쳐 가버리면 ㉢과수원을 지나온 달콤한 바람은 미루나무 손들을 흔들며 차르르 차르르 내 겨드랑에도 간지러운 새잎이 돋고 물 아래까지 헤엄쳐가 누워 바라보는 하늘 위로 ㉣뽕뽕뽕 헤엄쳐 달아나던 미루나무 한 그루. 달아나지 마 달아나지 마 미루나무야, 귀에 들어간 물을 뽕으려 햇살에 더워진 둥근 돌을 골라 귀를 가져다 대면 허기보다 먼저 ㉤온몸으로 퍼져오던 따뜻한 오수, ㉥점점 무거워져 오는 눈꺼풀 위로 멀리 ㉦누나가 다니는 분교의 풍금 소리 짙이고 미루나무 그늘 아래에서 7월은 더위를 잊은 채 깜박 잠이 들었다.

- 다음 중 위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 색채 대비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
  - 감각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동적인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다.
  - 의문형과 명령형을 통해 유년 시절에 대한 상실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자연과 하나가 되는 유년 시절의 모습을 통해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다음 중 위 시에서 느낄 수 있는 어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성인의 어조라 할 수 있다.
  - 특정 청자가 없이 혼잣말로 읊는 것으로 보아 독백조에 가깝다.
  - 유년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그리움의 어조가 나타난다.
  - ‘허기보다 먼저 온몸으로 퍼져 오던 따뜻한 오수’로 볼 때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정한의 어조를 느낄

수 있다.

-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의 의문형 어미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무의식적 동경이나 호기심을 드러낸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길 복판에서 6,7인의 아이들이 놀고 있다. 적발동부(赤髮銅膚)의 반라군(半裸群)이다. 그들의 혼탁한 안색, 흘린 콧물, 두른 베두렁이, 벗은 옷통만을 가지고는 그들의 성별조차 거의 분간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여아가 아니면 남아요, 남아가 아니면 여아인, 결국에는 귀여운 5,6세 내지 7,8세의 <아이들>임에는 틀림없다. 이 아이들이 여기 길 한복판을 선택하여 유희하고 있다.

돌맹이를 주워 온다. ㉠ 풀——이처럼 평범한 것이 또 있으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초록빛의 물건이란 어떤 것이고 간에 다시없이 심심한 것이다. 그러나 하는 수 없다. 곡식을 뜯는 것도 금제니까 풀밖에 없다.

돌맹이로 풀을 짓짚는다. 푸르스레한 물이 돌에가 염색된다. ㉡ 그러면 그 돌과 그 풀은 팽개피고, 또 다른 풀과 돌맹이를 가져다가 똑같은 짓을 반복하다. 한 10분 동안이나 아무 말이 없이 잠자코 이렇게 놀아본다.

10분만이면 권태가 온다. 풀도 ㉢ 싱겁고, 돌도 싱겁다. 그러면 그 외에 무엇이 있나? 없다.

그들이 일제히 일어서다. 질서도 없고, 충도의 재료도 없다. 다만 그저 앉았기 싫으니까 이번에는 일어서 보았을 뿐이다.

일어서서 두 팔을 높이 하늘을 향하여 쳐든다. 그리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러 본다. 그러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들 ㉣ [ ] 된다. 그러면서 그 비명을 곁한다. 나는 이 광경을 보고 그만 눈물이 났다. 여복하면 저렇게 놀까? 이들은 놀 줄조차 모른다. 어버이들은 너무 가난해서, 이들 귀여운 아기들에게 장난감을 사다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뻗치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는 그들의 유희가 내 눈에는 암만해도 유희같이 생각되지 않는다. 하늘은 왜 저렇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푸르냐, 산은, 벌판은 왜 저렇게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푸르냐는 조물주에게 대한 ㉔ 저주의 비명이 아니고 무엇이랴!

아이들은 짓을 줄조차 모르는 개들과 놀 수는 없다. 그렇다고 모이 찾느라고 눈이 벌건 닭들과 놀 수도 없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너무나 바쁘다. 언니 오빠조차 바쁘다.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노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놀아야 하나? 그들에게는 영영 엄두가 나서지를 앓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듯 불행하다. 그 짓도 5분이다. 더 이상 더 길게 이 짓을 하자면, 그들은 피로할 것이다. 순진한 그들이 무슨 까닭에 피로해야 되나? 그들은 위선 싱거워서 그 짓을 그만 둔다.

그들은 도로 나란히 앉는다. 앉아서 소리가 없다. 무엇을 하나 무슨 종류의 유희인지, 유희는 유희인 모양인데——이 권태의 왜소 인간들은, 또 무슨 기상천외의 유희를 발명했나?

5분 후에 그들은 비키면서 하나씩 둘씩 일어선다. 제각각 대변을 한 무더기씩 누어 놓았다. 아아 이것도 역시 그들의 유희였다. 속수무책의 그들 최후의 창작 유희였다. 그런 그중 한 아이가 영 일어나지를 앓는다. 그는 대변이 나오지 앓는다. 그럼 그는 이번 유희의 못난 ㉕ 임에 틀림없다. 분명히 다른 아이들 눈에 조소의 빛이 보인다. 아아 조물주여, 이들을 위하여 풍경과 완구를 주소서.

3. ㉔에 담긴 서술자의 심적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 허무감에 젖어 자탄하고 있다.
- ② 무력감을 해학적으로 극복하려 한다.
- ③ 대상의 본질에 경이감을 느끼고 있다.
- ④ 의아함으로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무료함으로 인해 냉소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4. 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의 주관적인 느낌의 표현이다.
- ② 단조로운 자연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 ③ 글쓴이의 권태로운 심리가 표현된 것이다.
- ④ 글쓴이로 하여금 권태를 느끼게 하는 대상이다.
- ⑤ 자연을 그 자체로서 권태로운 존재라는 의미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송환 등록이 시작됐을 무렵 갈팡질팡하던 생각이 떠올랐다. 제삼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자기를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그는 생각했었다.

정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준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북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었다. 아버지가 전쟁 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알 수는 없었으나, 설령 생존했다 하더라도 그 한 가지만으로 북을 택하기에는 너무 약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살 테지. 효도 같은 걸 하기엔, 현실이 너무나 무거웠다. 그리고 이북 사회 같은 데서 육친의 정이란 무엇이던가. 그러고 보면, 이제 그가 북으로 가야 할 아무 이유도 없었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은혜도 없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회에 속해 있다는 감정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회 속의 어떤 사람과 맺어져 있다는 말이라면, 맺어질 아무도 없는 사회의 어느 곳에 좌표(座標)를 정할 것인가.

그렇다고 그 사회 자체에 대한 신앙조차 잃어버린 지금에, 믿음 없이 예배하는 것이 고통스럽듯이, 신념 없이 정치의 광장에 서는 것도 두렵다. 코뮌리스트란, 월북할 때 그가 막연하게 그려 본 그런 인종들이 아니었다. 한때, 그들의 존재를, 기계가 대신한다는 현대에서 하나의 기적으로 생각했다. 이상주의의 마지막 수호자들. ㉖ 그는 코뮌리즘과 기독교 - 특히 가톨릭을 한 가지 정신의 소산으로 보는 아날로지를 그럴싸한 자가 발견으로 여겼다.

<중략>

(나)

에덴의 타락에서 법왕제(法王制)에 이르는 기독교의 도식은 그대로 코뮌리즘의 탄생과 발전의 도식에 신기롭게 들어맞는 것이었다. 그들은 완전한 좌우 상칭을 이루는 도형이었다. 철학을 전공하는 그는, 이 비밀을 우연하게 보지는 앓았다. 비밀은 마르크스가 헤겔의 제자였다는 사실에 있었다. 헤겔은 ㉗ 바이블에서 먼저 역사적 의상(衣裳)을 박탈하고 다음에 지방적 분장을 지워 버린 후 그 순수 도식(純粹圖式)만을 뽑아 낸 것이다. 말하자면 ㉘ 헤겔의 철학은 바이블의 에스페란토 역(譯)이었다. 도식이란 그것이 우수할수록 모방하기 쉽다. 마르크스는 선생이 애써 이루어 놓은 나체화 에다 다시 한 번 옷을 입혔다. 경제학과 이상주의의 옷을.

초대 교회의 소박한 정열과 경건한 믿음을 현대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정과 마찬가지로, 가령 코뮌리즘이 현실적으로는 광대한 판도를 지배하기에 이르렀지만 그 창시자들의 선의와 정열은 없어진 지 오래다. 구라파 사람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헤겔의 철학이 매력적인 아편

이요 결정적인 독소였던 것처럼, 이명준에게 있어서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살아 보았다는 체험은 지울 수 없는 것이었다. 그 회당 가운데서 그들은 우상(偶像)을 섬긴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영감(靈感)이 아니라 의식(儀式)이 지배하는 곳이었다. 창조적 정열이 아니라 철통 같은 명령이 지배하는 곳이었다.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증오와 보복이었다.

코뮤니즘에 있어서의 마틴 루터는 아직 없다. 크레믈린의 권위에 항거한 자들은 이단(異端) 심문소에서 화형(火刑)이 되었다. 권위는 아직도 튼튼하다. 신(神)의 재림이 2천 년 동안 연기되어 온 것처럼, 공산 낙원의 재현은 30년 동안 연기되어 왔다.

5. 이 글이 지닌 국문학사적인 의의를 바르게 말한 것은?

- ① 분단의 비극을 민족사적 입장에서 형상화한 역사 소설이다.
- ② 남북 분단의 이데올로기 문제를 최초로 다룬 실존주의 소설이다.
- ③ 남북 대립의 원인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규명하고 있는 정치 소설이다.
- ④ 남북 분단으로 인한 지식인의 이데올로기 편향성을 비판한 사회 소설이다.
- ⑤ 남북 분단의 문제를 민족 공동체 의식의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한 전후 소설이다.

6. (가)에 나타난 '명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북한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실망하고 있다.
- ② 제3국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다.
- ③ 한 때 코뮤니스트에 매우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 ④ 현대 사회는 인간이 기계에 종속된 사회라고 생각한다.
- ⑤ 아버지와는 성격 차이로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음산한 ㉔ 토막에서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명서 가족은 돈을 벌기 위해 일본에 간 아들 명수에게 큰 기대를 건다. 하지만 명수가 해방 운동에 가담하여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이웃 여자 : 왜 이렇게 사진이 희미해?

명서 처 : 내가 늘 지니고 다녀서 손때가 묻어 그럴 거야.

이웃 여자 : 내 눈으로두 어찌 보문 같은 피색\*이 있기도 헌데, 어찌 보문 아주 다르기도 허구... 대체 이걸 루는 이렇다 저렇단 말은...

명서 처 : 암, 그렇구 말구! 나 역시 믿을 수 없어. 하늘이 무너진다는 소릴 믿은문 믿었지, 어떻게 믿는담. 머리끝이 바로 서는 이 무서운 사연을...

이웃 여자 : 무서운 사연이라니?

명서 처 : 맙시사! 당치도 앓은! 이 조선 천지에 그런 일이 있어서 어쩔려구...

이웃 여자 : 어찌 뻘어? 내게 좀 들려주구랴.

명서 처 : ..... 뭐라던가? 예그 정신 봐! 애 금녀야, 그 뭐라더라, 네 오빠 했다는 것 말야.

금녀 : 또 그런 얘길 ...

이웃 여자 : 한 이웃에 살면서, 피차에 기울 게 뭐냐?

명서 처 : 애, 갑갑하다. 이 에미한테 한 번만 더 들려주렴. 그 구장이 하구 간 소리말야.

금녀 : 그건 맹탕 거짓말이라두.

명서 처 : 뭐?

금녀 : 웃마을 오빠의 친구에게 알아봤더니, 오빠 한 일은 정말 훌륭한 일이래요. 우리두 이런 토막살이에서 죽지 말구, 좀 더 잘 살아보자는...

명서 처 : ㉔ 그럼 그렇지. 그래 종신 징역을 산다는 건 정말이라디?

이웃 여자 : 종신징역?

명서 처 : 거짓말야! 거짓말야! (미친듯이 부르짖는다.)

금녀 : 암, 거짓말이죠!

명서 처 : 종신 징역이란 감옥에서 죽어 나온단 말야냐? 젊어서 새파란 개가! 금지옥엽 내 자식이! 내 아무래도 믿을 수 없는 일야! 그런 청천에 벼락 같은 일이 우리 명수의 신상에 있어 어쩔랴구! 신문에 만난 걸 보구 그걸 우리 명수라지만 그런 멀쩡한 소리가 어딴어? 이 넓은 팔도강산에 얼굴 같은 사람이 없구 최명수란 이름 석 자 가진 사람이, 어디 우리 자식 하나뿐일거랴구? 이건 누가 뭐래두 난 안 믿어.

금녀 : 어머니, 이러시다가 병이나 나시문 어떻게해유? 설사 오빠가 죽어 나온대두 조금도 서러울 건 없어유. 외려 우리의 자랑이예유. 오빠는 우릴 위해서 싸웠어유. 이런 번듯한 일이 또 있겠수? 더구나 이런 토막에서 자란 오

빠는, 결단코 이 토막을 잊지 않을거요. 병 드신 아버지질 구하시려구 늙으신 아버지질 섬기시려구, 그리구 이 철부지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빠는 장차 큰 성공을 해가지고 꼭 한번 이 토막에 찾아오셔요. 전보다 몇 배나 더 튼튼한 장부가 되어 오실거야. 여기를 떠날 때만해두 오빠는 나무를 하거나 끝밭을 매거나 남의 두 뭇은 했었는데, 지금쯤은 어머니, 오빠 얼마나 대장부가 됐겠수?

명서 처 :웁아! 그 늙은 몸도 크구 기상도 좋았겠다! 그 늙이 지금은 얼마나 훌륭한 장골이 됐겠니? 제 어미도 몰라 보게 됐을 거야... 아아, 명수야! 이제 명수가 저 사립문에 나타나서 장부다운 우렁찬 목소리로 이 어미를 부르고 떠벌떠벌 내 앞으로 걸어와서 그 억센 손으로 이 여윈 팔목을 덜컥 붙잡을 것이다..... 그러면 이 토막에도 서기\*가 날 거야.

금녀 : 아무렴, 서기가 나구 말구! 이 어두운 땅도 환해질 거예유... 그러면 어머니는 파리 파시노라구 거리거리로 떨고 다니실 필요두 없을 거구.....

이웃 여자 : 나는 암탉 궁둥이만 들여다 보구 맘을 조리잡아도 좋구....

명서 처 : ㉠ 아이구 금녀야! 우린 이런 형상으루 어떻게 우리 명수를 만나니? 이렇게 찌들어진 형상으루! 네 오빠를 맞이하기엔 이 집은 너무 누추하구나. 금녀야, 우리는 집 안을 치우구 몸을 단속하자. 이런 꼬락서니로 우리 명수를 만나서는 안 된다. 얘야, 이리 와서 머리를 빗어라. 기름두 남았지? 사립문에는 불을 켜구... 귀한 사람이 들어올 때 집 안이 컴컴해선 못쓰느니라.

금녀 : (어머니의 미친듯이 서두는 양을 바라 보고 있는 금녀의 눈에는 일종의 공포의 빛이 감돈다.)

(㉡ 바람소리!)

명서 처 : 금녀야, 뭘 하니? 빨리 머리를 풀어라. 에미는 불을 켜 테니까.

금녀 : (불안한 듯이 어머니만 꼭 바라보고 섰다.)

이웃 여자 : 좀 답답해서 저러겠니? 보고 있는 나까지 속이 썩이는구나.

금녀 : 오빠 생각만 나문 저러신대유. 그러던 중에두 오늘은 유달리 심허신 걸유. 난 어쩐지....

이웃 여자 : 당찮어! 무슨 그런 엉뚱한 생각을! 그러지 말구 네가 어머니 위로를 잘해드려라. 위로해 드릴 사람이 래야 너밖에 더 있나?

금녀 : 아무리 위로한댕자 소용 없어유. 그리고 내게는 뭐라구 위로해 드릴 말두 없구. 다만, 이 증세가 속히 지나가기만 바랄뿐이지.

이웃 여자 : 하기가 그렇겠지. 무슨 말이 저 거친 마음에 위안이 되겠니. 마치 계등에 소금칠이지. (사립문 등불을 다는 명서처에게) 금녀네, 과히 상심치 말게나. 아들 생각다가 지레 죽겠네. (퇴장)

- 유치진, 「토막(土幕)」

\* 피색 : 생긴 모양. 얼른 보아 알아볼 만한 구석.

\* 서기(瑞氣) : 상서로운 기운.

7.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다.
- ② 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나타나 있다.
- ③ 사실주의 기법으로 당대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 ④ 일제 강점기의 궁핍한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⑤ 등장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8.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민족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해 문맹자가 많았다.
- ②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독립 운동이 전개되었다.
- ③ 독립 운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 ④ 비밀리에 독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제히 검거되었다.
- ⑤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가 탄광 노동자가 되기도 하였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새터 관전이네 머슴 대길이는  
 상머슴으로  
 누룩 도야지 한 마리 번쩍 들어  
 도야지 우리에게 넘겼지요  
 그야말로 도야지 먹 따는 소리까지도 후딱 넘겼지요  
 밥 때 늦어도 투덜덜 졸 통 모르고  
 이른 아침 동네길 이슬도 털고 잘도 치워 흰히 가르마  
 났지요  
 그러나 낮보다 어둠에 빛나는 먹눈이었지요  
 머슴방 등잔불 아래  
 나는 대길이 아저씨한테 가가거겨 배웠지요

그리하여 장화홍련전을 주룩주룩 비오듯 읽었지요  
어린이 세상에 눈뿜었지요  
일제 36년 지나간 뒤 가가거겨 아는 놈은 나밖에 없었  
지요

대길이 아저씨한테는  
주인도 동네 어른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지요  
살구꽃 핀 마을 뒷산 올라가서  
흠적삼 처녀 따위에는 눈요기도 안 하고  
지겟작대기 뉘어 놓고 먼 데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나도 따라 바라보았지요  
우르르 달려가는 바다 울음소리 들리는 듯하였지요  
찬 겨울 눈더미 가운데서도  
덜렁 겨드랑이에 바람 잘도 드나들었지요  
그가 말하였지요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단다  
남하고 사는 세상이란다

대길이 아저씨  
그는 나에게 불빛이었지요  
자다 깨어도 그대로 커져서 밤새우는 긴 불빛이었지요

- 고은, '머슴 대길이'

9.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치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한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른 사건의 진행을 보여 준다.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모를 보여 준다.
- ④ 어조를 바꿈으로써 대상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한다.
- ⑤ 대상이 살고 있는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10. 이 시를 영상으로 제작하려고 할 때 나올 수 있는  
장면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대길이가 돼지를 번쩍 들어 올리는 장면
- ② 대길이가 한글을 가르치다가 쫓기는 장면
- ③ 대길이가 이른 아침에 동네길을 청소하는 장면
- ④ 대길이가 지겟작대기를 세워 놓고 바다를 바라보는  
장면
- ⑤ 대길이가 찬 겨울에 초라한 옷을 입고 '나' 와 말  
을 하는 장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네는 楊州(양주) | 소울히여  
디위에 新都形勝(신도형승)이샷다.  
開國聖王(기국성왕)이 聖代(성대)를 니르어샷다.  
잣다운더 當今景(당금경) 잣다운더  
聖壽萬年(성수만년) ㅎ샤 萬民(만민)의 咸樂(함락)이샷다.

㉠아으 다롱다리

알픈 漢江水(한강슈)여 뒤흔 三角山(삼각산)이여  
德重(덕등) ㅎ신 江山(강산) 즈으메 萬歲(만세)를 누리쇼  
셔.

▶ 현대어 풀이

옛날에는 양주 고을이여  
경계에 새 도읍지로서의 빼어난 모습을 갖추었구나.  
태조께서 태평성대를 이루어 놓으셨구나.  
도성답구나. 지금의 경치 도성답구나.  
임금께서 만수무강하시어 온 백성이 즐거움을 누리는구  
나.

아으 다롱다리

앞에는 한강물이여, 뒤에는 삼각산이여.  
많은 덕을 쌓으신 이 강산에서 영원토록 사십시오.

11. 이 노래의 제목과 관련하여 창작 동기를 알 수 있  
는 구절을 찾아 쓰시오.

12. ㉠을 통해 추리할 수 있는 사실을 쓰시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천하만물이 짝이 있건만 나는 어찌 짝이 없나?  
새소리 들어도 회심하고 꽃 핀걸 보아도 비참한데  
애고답답 내 팔자야 어찌하여야 좋을거나.  
가자하니 말 아니오 아니 가고는 어찌 할고.  
덴동어미 듣다가서 썩 나서며 하는 말이  
가지마오 가지마오 제발 적선 가지말게.  
팔자한탄 없을까마는 가단 말이 웬말이오?

잘 만나도 내 팔자요 못 만나도 내 팔자지.  
백년해로도 내 팔자요 십칠 세 청상도 내 팔자요.

㉠ 팔자가 좋을량이면 십칠 세에 청상될까?

신명도망 못할지라 이내 말을 들어보소.

<중략>

죽을 고생 하는 사람 칠팔십도 살아있고  
부귀호강 하는 사람 이팔청춘 요사하니  
고생 사람 덜 사잖코 호강 사람 더 사잖네.  
고생이라도 한이 있고 호강이라도 한이 있어  
호강살이 제 팔자요 고생살이 제 팔자라.  
남의 고생 꺾다 하나 한탄한들 무엇할고.  
내 팔자가 사는데로 내 고생이 달는데로  
좋은 일도 그뿐이요 그른 일도 그뿐이라.  
춘삼월 호시절에 화전놀음 와서들랑  
꽃빛을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밝은 달은 예사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좋은 동무 존 놀음에 서로 웃고 놀다보소.  
사람의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관계참고  
고운 꽃도 새겨보면 눈이 캄캄 안보이고  
귀도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걸  
새소리도 고쳐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네.  
맘 심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거요 새는 여사 우는거요  
달은 매양 밝은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거라.  
마음만 여사 태평하면 여사로 보고 여사로 듣지.  
보고 듣고 여사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소.  
앉아 울던 청춘과부 황연대각 깨달아서  
덴동어미 말 들으니 말씀마다 개개 옳애.  
이 내 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부쳐보세.  
이팔청춘 이 내 마음 봄 춘자로 부쳐두고  
화용월태 이 내 얼굴 꽃 화자로 부쳐두고  
술술 나는 긴 한숨은 세우춘풍 부쳐두고  
밤이나 낮이나 술한 수심 우는 새나 가져가게.

13. 이 글과 가장 관련이 깊은 풍속은?

- ① 강강술래            ② 쥐불놀이            ③ 화전놀이  
④ 수건돌리기        ⑤ 달맞이 놀이

14.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속놀이를 소재로 삼고 있다.  
② 계절적 배경이 꽃 피는 봄이다.  
③ 부녀자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④ 당시의 사회상과 하층민의 생활상이 반영되었다.  
⑤ 조선 후기 상류층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명나라 때 주생은 과거에 실패하고 떠돌다가 어릴 적 친구 배도를 만나 사랑을 나누지만, 승상의 딸 선화를 본 후 변심하여 선화와 연인이 된다. 사랑을 잃은 배도는 괴로워하다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주생은 선화와 헤어지지만 우여곡절 끝에 혼인하기로 한다. 때마침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주생은 종군 서기로 징집된다.

마침내 주생은 조선에 이르렀다. 주생은 안주 백상루에 올라 옛날풍의 칠언시를 지었다. 그 시 전편은 남아 있지 않은데 마지막 네 구절이 이러했다.

시름 안고 홀로 강가 누정에 오르니  
첩첩이 푸른 산 어찌 그리 많은지.  
고향 바라보는 내 눈길 가로막지만  
시름이 오는 길은 끊지 못하네.

이듬해인 계사년(1593) 봄에 명나라 군대가 왜적을 대파하고 경상도까지 내려갔다. 이때 주생은 선화를 그리워하다 마침내 깊은 병이 들어 군대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개성에 머물러 있었다.

당시에 나는 마침 볼일이 있어 개성에 갔다가 그곳의 여관에서 주생을 만났다. 우리는 말이 서로 통하지 않아 글로 대화를 주고 받았다. 주생은 내가 한문을 잘하는 것을 보고는 자못 후하게 대우해 주었다. 내가 주생에게 병든 이유를 묻자 주생은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 날은 비가 내려 발이 묶였기에 밤에 불을 밝히고 주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생은 답사행」한 편을 내게 보여 주었는데, 그 노랫말은 다음과 같았다.

기댈 곳 없는 외로운 그림자  
이별의 한 토로하기 어려운데  
강가 나무 위로 돌아가는 기러기 줄지어 나네.  
객창의 가물거리는 등불에 이미 놀란 마음이어늘  
황혼녘 빛소리를 어이 차마 들을꼬.

낭원의 구름 아득하고  
영주의 바다는 막혀 있나니  
주렴 드리운 옥루는 어디쯤인지?  
외로운 내 신세 부평초되어  
하룻밤에 오강으로 흘러갔으면.

나는 그 노랫말에 담긴 뜻이 궁금해서 무슨 사연이 있

는지 누차 간절히 물었다. 이에 주생이 그 전말을 알려준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이야기이다.

주생은 또 가방에서 책을 한 권 꺼내 보여 주었다. 책 제목은 『화간집(花間集)』으로, 주생이 선화 및 배도와 주고받은 시 100여 편이 실려있고, 또 동료들이 이들의 시를 읽고 써준 시가 10여 편 들어있었다. 주생은 눈물을 흘리며 대게 도시를 간절히 부탁했다. 나는 원진의 회진시」 형식을 본떠 30운의 배율을 지어서 책의 끝에 써 주며 이렇게 위로했다.

“대장부의 근심은 공명을 이루지 못한 데 있을뿐이오. 천하에 어찌 미인이 또 없겠소? 더구나 이제 조선이 이미 평화를 찾았으니 황제의 군대가 곧 돌아가게 되지 않겠소. 동풍은 이미 주랑편이니 교씨가 남의 집에 갇히리라는 걱정은 하지마시오. \* ”

이튿날 아침 작별인사를 하는데, 주생은 거듭 고맙다고 하며 이렇게 말했다.

“제 얘기는 한바탕 웃음거리에 불과하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건 없어요.”

주생은 나이가 스물일곱이었는데, 얼굴이 수려해서 바라보면 마치 그림 같았다.

- 권필, 「주생전(周生傳)」

\* 동풍은 이미 ~ 하지 마시오. : 적벽대전에서 동풍이 불어 오나라가 승리함으로써 주유(=주량)의 바람대로 아내 소교(=교 씨)를 조조에게 빼앗기지 않았다는 『삼국지』 내용을 활용하여 주생은 주랑에, 주생의 연인 선화는 교 씨에 빗대어 표현함.

15.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바른 것은?
- ①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다.
  - ② 두 남녀의 연애담을 다루고 있다.
  - ③ 초현실적인 사건을 소재로 취했다.
  - ④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다.
  - ⑤ 시점이 전환되어 서술되어 있다.

16. <보기>는 이 작품의 전체 줄거리이다. <보기>를 참조할 때 이 글이 속한 구성상의 단계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주생전’의 전체 내용 구조>

- A. 주생이 배를 띄우고 잠들었다가 ‘전당’에 도착하여 어릴 적 친구인 배도를 만남.
- B. 배도에게 연정을 느끼고 그와 동거하게 됨.
- C. 배도를 찾으러 선화의 집에 갔다가, 선화를 보고 반함.
- D. 선화의 동생인 국영이 가르침을 청해 와 그의 집에서 기거하게 됨.
- E. 밤을 틈타 선화를 만나 사랑을 이루고 매일 밤 남몰래 만남.
- F. 사실을 알게 된 배도의 질투로 인해 선화와 헤어져 있으면서 서로 간절히 그리워 함.
- G. 배도가 병으로 죽고, 주생은 친척의 도움으로 선화와 혼약을 함.
- H. 혼인날을 기다리던 중, 왜적의 침입 때문에 구원병으로 징발되어 참전함.
- I. 전쟁 중, 선화에 대한 그리움으로 병이 들어 객사에 머물게 됨.

➡ 객사에서 내(지은이)가 ‘주생’을 만나 이 이야기를 듣고 글로 씀.

- ① 발단
- ② 전개
- ③ 위기
- ④ 절정
- ⑤ 결말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말을 그치며 흥련 형제 일어나 절하고 청학을 타고 반공에 솟아 가거늘, 부사가 그 말을 들으매 날날이 분명하니 자기가 흥녀에게 속은 줄 깨닫고 더욱 분노하여 날 새기를 기다려 새벽에 좌기를 베풀고 좌수 부부를 성화같이 잡아들여 각별 다른 말은 묻지 아니하고 그 낙태한 것을 바삐 들이라 하여 살펴본즉 ㉠ 낙태한 것이 아닌 줄 분명하매 좌우를 명하여 그 낙태한 것의 배를 가르라 하니 좌우가 영을 듣고 칼을 가지고 달려들어 배를 가르니 그 속에 쥐똥이 가득하였거늘 허다한 관속이 이를 보고 다 흥녀의 흥계인 줄 알아 저마다 꾸짖으며, 흥련 형제가 애매히 처참하게 죽음을 가장 불쌍히 여기더라.

부사가 이에 대로하여 흥녀에게 큰칼을 씌우고 소리를 높여 호령하여 말하기를,  
 “이 간특하고 흉악한 년아, 네 천고 불측한 죄를 짓고 도 방자스럽게 공교한 말로 관장을 속이던가? 그때는

내 잠깐 생각하는 바가 있어 방송하였더니, 지금도 무슨 말을 꾸며 변명코자 하느냐? 네 국법(國法)을 업신 여기고 몹쓸 일을 행하여 무죄(無罪)한 전실(前室) 자식을 죽인 연고를 자세히 아뢰라.”

하니 좌수가 이 거동을 보매 제 몸에 돌아가는 죄는 생각지 아니하고 애매한 자식을 무고히 죽였음을 뉘우치고 다만 눈물을 흘리며 아뢰기를,

“저의 무지 무식하온 죄는 성주의 처분에 있사오나 비록 시골의 변변하지 못한 어리석은 백성이온들 어찌 사리와 체모를 모르리잇고. 전실 장 씨 불쌍히 죽고 두 딸이 있사오매 부녀가 서로 위로하여 세월을 보내옵더니 후사를 아니 돌아보지 못하여 후처를 얻사온즉 비록 어질지 못하오나 연하여 세 아들을 낳사오매 마음에 가장 기뻐하옵더니 하루는 제가 나갔다가 돌아온즉 흥녀가 문득 발연변색 하고 하는 말이, ‘장화의 행실이 불측하여 낙태하였으니 들어가 보라.’ 하고 이불을 들추매 제가 놀라 어두운 눈에 본즉, 과연 낙태한 것이 적실하오매 미련한 소견에 전혀 깨닫지 못하는 중 더욱 전처의 유언(遺言)을 아득히 잊고 흥계(凶計)에 빠져 죽인 것이 분명하오니 그 죄 만 번 죽어도 사양치 아니하나다.” / 하고 흥녀가 또한 땅에 엎드려 말하기를,

“소첩의 몸이 대대 거족으로 문중이 쇠잔하고 가세 탕패하던 차 좌수가 간청하므로 그 후처가 되오니 전실의 양녀가 있사오되 그 행동거지 심히 아름다움기에 친자식같이 양육하여 이십에 이르러는 저의 행사가 점점 불측하여 백 가지 말에 한 말도 듣지 아니하고 성실치 못할 일이 많사와 원망이 심하옵기로 때때로 저를 경계하고 타일러 아무쪼록 사람이 되게 하옵더니 하루는 저희 형제의 비밀한 말을 우연히 엿듣사온즉 그 흥패한 말이 측량치 못할지라 마음에 가장 놀랍사와 가부더러 이른즉 반드시 모해하는 줄로 알 듯하여 다시금 생각하여 저를 먼저 죽여 내 마음을 펴고자 하여 가부를 속이고 죽인 것이 옳사오니 자백하오매 법에 따라 처치하시려니와 첩의 아들 장쇠는 이 일로 말미암아 천벌을 입어 이미 병신이 되었으니 죄를 사하소서.” / 하고 장쇠 등 삼 형제 또한 일시에 여쭙오되,

“소인 등은 달리 아뢰 말씀이 없사오니 다만 ㉠부모의 대신으로 죽삽고 늙은 부모를 용서하심을 천만 비나이다.”

(중략)

각설, 배 좌수가 국가 처분으로 흥녀를 능지하여 두 딸의 원혼을 위로하나 오히려 쾌한 것이 없으며 오직 여아의 애매히 죽음을 주야로 슬퍼하여 그 형용을 보는 듯 목소리를 듣는 듯 거의 미치기에 이를 듯하여 다만 다음 세상에 다시 부녀지의를 맺음을 종일 축원하는 중 집안에 살림할 이 없으며 그 지향할 곳이 더욱 없어 부득이 혼처를 구할새 향족 윤광호의 딸을 취하니 나이

십팔 세요, 용모와 재질이 비상하고 성품이 또한 온순하여 자못 숙녀의 풍도가 있는지라.

1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 개)

- ① 작품 내부의 인물이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 ② 과거의 사건을 밝혀 인과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대화와 행동 묘사를 위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④ 전기적(傳奇的) 요소가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⑤ 장면마다 시점을 달리하여 작중 상황과 인물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1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계모형 소설은 계모의 영입에서 파생되는 가족간의 갈등을 문제 삼고 있는 소설을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소설에서 계모는 악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 전처 자식을 해치는 수법이 작품마다 대체로 비슷하다. 고전소설은 거의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보여주고, 일반적인 고전소설이 낙관적 분위기나 행복한 결말을 맺는데 반해 계모형 소설은 계모의 학대로 전처 자식이 죽거나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남편이나 아버지의 존재는 대체로 무기력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봉건체제의 붕괴를 상징하는 일면이며, 계모를 가정에서의 이질적인 존재로 본 것은 부계혈통 강조와 족보 중시 경향을 잘 드러내고 있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 즉 남자의 재취(再娶)와 전처자식을 매개로 한 여자의 질투, 재산상속 등은 부녀자들의 일상적 삶과 밀착된 내용이므로 계모형 소설의 독자층은 주로 서민 부녀자들이었다.

- ① 배 좌수의 재취로 인해 가족간의 갈등이 촉발된 것이라 볼 수 있군.
- ② 배 좌수가 전처 소생인 장화와 흥련을 아끼는 것이 흥녀의 질투를 불러일으킨 것이군.
- ③ 흥녀가 전처 소생인 장화를 음해하는 것으로 볼 때 악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이라 할 수 있군.
- ④ 배 좌수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무기력한 존재로서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군.
- ⑤ 흥녀가 남매를 시기한 것은 부계혈통을 강조와 족보 중시의 경향에 대한 당시 부녀자들의 불만을 대변하는



# 정답 및 해설

1) <답> ④

이 작품에서는 유년 시절에 대한 추억이 담겨 있지 상실감의 정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① ‘차르르 차르르’, ‘뼉뼉뼉’, ‘깜박’ 등의 음성상징어가 쓰이고 있다. ② 파란 하늘과 흰 뭉게구름의 색채 대비가 나타난다. ③ 시각, 청각, 촉각, 공감각적 이미지 등이 쓰이고 있다. ⑤ 미루나무 그늘 아래에서 깜박 잠이 들면서 자연과 화자가 하나의 풍경이 되고 있다.

2) <답> ④

이 시의 화자는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유년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으므로 정한의 어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3) ⑤

4) ⑤

자연 자체 권태라기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마음이 그것이다.

5) <답> ②

6) <답> ⑤

7) <답> ②

희곡은 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므로 직접적인 묘사가 불가능하다.

8) <답> ②

②의 내용은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9) <답> ①

이 시는 ‘대길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동네길’, ‘머슴방’, ‘살구꽃 핀 마을 뒷산’ 등의 공간이 나오기는 하지만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③ 시적 대상인 ‘대길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고 고유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④ 시의 처음부터 끝까지 ‘대길이’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⑤ 대길이가 사는 공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10) <답> ②

‘대길이’는 머슴방 등잔불 아래에서 ‘나’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그 때문에 쫓기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11) <답> 디위에 新都形勝(신도형승)이샷다.

12) <답> 고려가요의 영향을 받았다.

13) <답> ③

이 글은 여성들이 일 년에 한 번 꽃 피는 봄에 화전을 부쳐 먹으며 노는 화전놀이를 노래한 가사 작품이다.

14) <답> ⑤

화전놀이는 신분에 상관없이 부녀자면 참여할 수 있었으며 이 글의 중심 화자인 덴동 어미는 상류층 여성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이 글은 화전놀이라는 민속놀이를 소재로 삼고 있다.

② ‘꽃 지기 전에 화전 가세’라는 구절을 통해서 이 글의 계절적 배경이 꽃 피는 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부녀자들이 화전을 부쳐 먹으며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등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또한 덴동 어미의 삶의 이력을 통해 당시의 사회 속에서의 부녀자의 삶의 모습도 생생히 드러나 있다.

④ 덴동 어미가 자신의 삶의 이력을 노래하는 부분에 조선 후기 사회와 하층민의 생활상이 반영되어 있다.

15) <답> ⑤

16) <답> ⑤

17) <답> ①, ⑤

18) <답> ⑤